조토의 그리스도의 세례 (1304-1306) 스크로베니 성당, 파도바, 이탈리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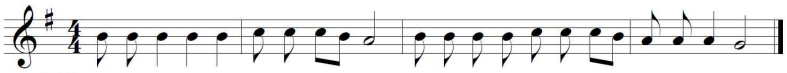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 42,1-4,6-7

[화답송] ..... 시편 29(28), 1ㄱ과 2. 3ㄱㄷ과 4. 3ㄴ과 9ㄷ-10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제2독서] ..... 사도 10,34-38

[복음환호송] ..... 마르 1,7-11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르 1,7-11

[성가안내]
- 입당성가 [481] 요르단 강에서
- 봉헌성가 [1] 나는 믿나이다
- 성체성가 [174] 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479] 기쁜날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 연미사	봉헌
정선	김윤아 마리아
김영우 요셉, 강견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임선빈 필립	임금종 마가렛
김화자 소화 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숙 카타리나
양윤희 루시아	이영애 레지나
김진형 치프리아노	주바울라
● 생미사	**봉헌**
이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윤요한/루시아
이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이혜자 글라라
이지연 안나 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이지연 안나 레지나	이영애 레지나
엄기섭 안토니오, 김한숙 카타리나	익명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녜스	이지연 안나레지나
박기목 알버트 가정	조미카엘 데레사
박재희 데레사	손명희 엘리사벳
청년 전례부	김진섭 야고보
송대원 다니엘	송명자 리디아
김진열 가롤로신부, 박순호 티모테아수녀	강혜숙 바울라
맨하탄 한인 공동체	강혜숙 바울라
유데이빗, 유대니엘, 유케이티	유희순 그레이스
정영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1월 10일	박기웅 사도요한	이경자 율리안나	김미화 마리 클레어	이경자 율리안나	
1월 17일	백이백 아오스딩	박기웅 사도요한	민재인 데레사	민재인 데레사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35 지하 성당 고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천도 복숭아 – 아름다운 우정]

'초토의 시'로 유명한 시인 '구상'과
'소'를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은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구상이 폐결핵으로 폐 절단 수술을 받았는데
몸과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절친한 이중섭이 꼭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이중섭보다 교류가 적었던 지인들도
병문안을 와 주었는데,
섭섭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친구가 무슨 사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 때 이중섭이 찾아 왔습니다.

심술이 난 구상은 반가운 마음을 감추고
짐짓 부아가 난 듯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누구보다 자네가 제일 먼저 달려 올 줄 알았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나?"

그러자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네.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하며 갖고 온 꾸러미를
풀어보니 천도복숭아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이 천도 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 한다지 않던가. 그러니 자네도
이걸 먹고 어서 일어나게."

구상은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과일 하나 사 올 수 없었던 가난한 친구가 그림을
그려오느라 늦게 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상 시인은 2004년 5월 11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천도 복숭아를 서재에 걸어 두고 살았답니다.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야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주님 세례 축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하느님이시다.'라고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마주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늘 함께 있는 보호자처럼 그분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십니다. 성자의 강생은 나약한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세례는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동참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심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례가 하느님과 만나는 문이라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세례는,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성자께서 성부와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나약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어린아이의 모습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셨듯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례는 영광이고, 예수님께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하시는 사랑의 일치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성부께 순종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택하신 겸손의 표양입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간인 우리도 주님의 세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느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내 삶의 중심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놓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쳐야 합니다.

(신우식 토마스 신부)

♡ 축하합니다.

2020년 '일년일독 성경통독' 완독하심을 축하합니다.

강혜숙 바울라
신애송 헬렌

기도해주세요

♡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전마사자(카타리나) 김동희(헬레나)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봉운(바오로)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토요일 4:00 am
  일요일 8:00 am, 9:15 am (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 미사 :
  월 ~ 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미사참석시 지킬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평화의 인사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울뜨레야 !미동북부 2021년 Vitual 신련 교례회

◦ 일시 : 2021. 1.10. (일) 오후 7시
◦ 참가신청 : 본당 간사 또는 당일 직접 참가
Tel : 929 - 444 - 1411
◦ 참가 방법 : 핸드폰 또는 컴퓨터

● 참고 사항:

1월 10일 오후 6기부터 Zoom Meeting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간사님에게 신청하신분은 미리 들어오셔서 경품 참가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오후 6시 45분까지 참가 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데꼴로레스!

성경 통독을 합시다~

본당에서는 '성경통독표'를 통해 성경을 일 년 일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매일 와 닿은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성경말씀을 새기는 감동,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 2021년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세요.

한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